

매일묵상일기

가정예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예배자료

삶의 모든 영역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2026년 10월 16일(금)

- 찬송 (323장) 다함께
- 기도 가족 중에서
- 성경 (역대상 26:20~32) 다함께

이스하르 자손 중에 그나나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역대상 26:29)

- 묵상자료 인도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역대상 26장 말씀은 다윗 왕이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조직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의 공간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과 성전 밖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관원과 재판관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제단 곁에만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공간의 관리와 성전 밖 세상의 행정과 재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성도의 예배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일상과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헌신뿐만 아니라, 드려진 것을 정직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태도로 완성됩니다. 레위인들은 백성이 바친 헌물과 제사 물품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군사들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얻어 구별해 바친 거룩한 전리품들을 성물 공간에 보관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다음 세대의 성전 사역과 보수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공간지기들은 화려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앞선 세대의 피땀 어린 헌신을 정직하게 보관하고 다음 세대로 전했습니다. 예배의 거룩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원을 바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게 맡겨진 시간과 물질과 가정을 거룩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둘째로,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성도의 참된 섬김입니다. 다윗은 레위인들 중에서 관원과 재판관을 세워 성전 밖 백성들의 일을 다스리게 했으며, 멀리 떨어진 요단 동쪽 변방인 길르앗 야셀 지역까지 능력 있는 레위인들을 보내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맡겼습니다. 성전 안에서 드려진 거룩한 예배의 질서가 백성들의 삶의 현장과 사회 질서 속으로 고스란히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예배당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하면서도 일터에서 불성실하거나 사람을 불공정하게 대한다면 참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 과 학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할 거룩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의 태도가 하나로 온전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기도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한 고백이 일터와 가정에서의 정직과 성실로 이어지게 하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함께